

“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

■ 이종윤 원로목사

이미 만들어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도 있고, 자신이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다.

전자(前者)에 비해 후자(後者)가 창조적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육중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에게는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했다. 간수를 비롯해서 그와 접촉하는 가이사 의 집사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들 많이 가지고 있었다.

세상이 내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이 없다고 빈둥거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에게는 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만들어 할 줄 아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앞길은 평탄대로나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적 성숙성(Spiritual Maturity)을 갖추고 학문의 지고성(Academic Excellence)으로 훈련받은 창조적 인생관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인재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창조적인 인재란 또한 이웃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노예로서 배신자요, 무죄한이었건만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선도하여 자기의 심복지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세상을 저주하고 일터를 비난하는 수가 있다.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뭣기에 세상이 내게 굽신거리고, 직장이 나를 상전 취급 대우하겠는가?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겸손히 섬기면 자연히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는 식으로 이웃과 담을 쌓아 가면 그는 이웃이 없는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악인을 선인으로, 쓸모없는 이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품위 있는 인격과 전문인이 될 때 창조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 인물은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감옥이란 지겹고 불결하고 부자유하여 고생스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감옥을 기도와 묵상과 영적교계의 장소로 만들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중 상당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성소(Holy Place)로 만들었다.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살출을 모른다면 에덴동산에 갔다 놓는다 해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일을 만들어 하고, 친구를 만들어 사귀고, 환경을 만들어 사는 창조적 인재가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동참자가 되고 쓰임 받는 일꾼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신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신년 첫 주일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2021년 한 해도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Youtube 서울교회 계정을 통해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1부-9시, 2부-11시20분, 3부-오후2시에, 찬양예배-오후 5시에 예배 영상이 Youtube를 통해 송출됩니다.
 신년 첫주일 감사예배 때 함께 가지던 성찬식은 비대면 예배로 시행하지 못하고 신년감사헌금만 준비하여 드립니다.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103_sermon.jpg

2021년은 서울교회를 재창립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전심으로 참여하여, 교회와 더불어 각 개인, 가정, 일터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바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세리,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뵤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라위), 이재욱·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

■ 시편 91:1-7

2020년을 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위로와 소망의 끈을 끝까지 단단히 부여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시편 91편의 말씀은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 자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이 제어무리 강한들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재주가 탁월하다고 해도 무한하신 전능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1절). 이 시편은 제목도 없고 저자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아 모세나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 시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높이 사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피겐은 이보다 더 견고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심오한 시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자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 때문일 것입니다.

‘자존자는 가장 높은 분을 의미합니다. 자존자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없어도 그를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피조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인 자존자의 은밀한 곳이기도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은밀하다’는 말 자체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자존자의 은밀한 곳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은밀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곳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안식과 돌봄이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환난 중에 능히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움을 입는 복된 처소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은밀한 처가가 있고, 그 처소는 보호와 위로와 안식과 돌봄이 넘쳐나는 최고의 처소임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시 27:5, 31:20)

2. 전능하신 자의 그늘 밑에 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안식과 돌봄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다윗이 경험하였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하는 아픔을 겪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아픔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헛된 우상을 찾지 아니하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며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전능자에게 간구하도록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복락은 전능자를 굳게 신뢰하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올 한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오늘 이후로 오로지 주님만 앙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존자이시요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은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자존자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그 날개짓으로 덮으시며 어미 날개짓에 숨은 새끼 새들은 지상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는 시편 기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극한 염병에서 고침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의 진실함이 그에게 피하려는 자들의 병패가 되고 손 병패가 되십니다.

맺는 말

올 한 해는 큰 희망을 안고 출발했지만 너무나도 험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또다시 기대하는 것은 자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에게 피하는 모든 이들을 넉넉하게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위로받도록 포근하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오는 해를 묵묵히 맞이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역사가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고후 5:17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3(새해 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9(53)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5:9-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신년감사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사귀어야 할 자와 단절해야 할 자”...	서장원 목사
* 찬 송 Hymn	342(395)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47:2-5 인 도 자
찬 송	570(453) 다 합 께
기 도	김광태 집사
성 경	계 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있다” ...	설 교 자
* 찬 송	550(248)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I부	최종희 권사
성 경	삼하 11:6-2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우리아의 손에 들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함이라(고전 5:11)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해란				
수요 II부	시 온	최현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701호
수 요 예 배	I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 모 임
- 1. 정기당회 / 1월6일(수) 오후 8시 402호
- ☛ 알 림
-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신년감사헌금
오늘은 2021년 첫주일을 맞아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338명	415명	1,753명	470명	2,090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밀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희생을 각오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일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흉내나 내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안일주의에 빠져 인생을 소일하기보다는 창조적 인물이 되어 무슨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 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시작해 놓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되 옳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